

# A Study on the Experience of Writing a Learning Reflection Journal : Focusing on the case of Biblical Teaching Method Class

Park Eunhye  
(Sungkyul University)

## Abstract

**Purpose of stud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xperience of writing a learning reflection journal, identify the effects, and propose an effective learning reflection journal activity way.

**Research content and method:** This study examined the theoretical background of the concept and educational effect of the learning reflection journal through literature review in terms of educational and Christian educational aspects, and analyzed the learning reflection journal experience through the interviews with six students. Through this, this study identifies the effectiveness of the learning reflection journal and suggests effective learning reflection journal activity way that can be applied to training that can grow as a Christian educator who practices what he or she know through major classes.

**Conclusions and Suggestions:** For effective learning reflection journal activities, it was proposed to reduce the number of review and reflection questions so that they would not be burdensome, to include questions in a balanced way, to help learners to improve class attitudes. It was also proposed that the submission period and the number of writing journals should be agreed upon with the students at the beginning of the semester.

## Key Words

learning reflection journal, learning experience, review, improvement learning attitude, academic achievement

## 학습성찰일지 작성 경험에 관한 연구 : 성서교수법 수업사례를 중심으로

박은혜\*  
(성결대학교)

### 논문 요약

**연구 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학습성찰일지 작성 경험을 분석하고, 효과를 파악하여 효과적인 학습성찰일지 활동 방안을 제안하고자 함이다.

**연구 내용 및 방법** : 본 연구는 학습성찰일지의 개념과 교육적 효과를 교육학적 측면과 기독교교육학적 측면에서 문헌 연구를 통해 이론적 배경을 살펴보고, 성서교수법 수업을 수강한 학생들이 작성한 중간 및 기말 서술식 강의평가 자료, 교수자가 직접 만든 종강설문지 등의 자료, 12번의 학습성찰일지 작성 경험을 한 6명의 학생과의 면담을 통해 학습성찰일지 경험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학습성찰일지의 효과를 파악하고 전공 수업을 통해 아는 것을 실천하는 기독교교육자로서 성장할 수 있는 훈련에 적용할 수 있는 효과적인 학습성찰일지 활동 방안을 제안하였다.

**결론 및 제언** : 효과적인 학습성찰일지 활동을 위해 복습과 성찰의 문항을 부담이 되지 않도록 줄이고, 균형있게 문항을 포함할 것과 학습자 측면에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문항을 설정하고, 수업 태도 개선을 위한 실천적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문항을 포함할 것을 제안하였다. 제출 기간과 작성 횟수에 대해 학생들과 학기 초에 합의하여 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 〈 주제어 〉

학습성찰일지, 학습경험, 복습, 수업 태도 개선, 학업성취도

## I. 들어가는 말

2019년 말부터 시작된 코로나19는 전 세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종교 등 인간 삶의 여러 영역에 갑작스럽게 엄청난 영향을 끼쳤다. 그동안 당연하게 행해왔던 많은 것들이 제한을 받게 되었다. 함께 모여 식사를 하고, 문화 공연을 즐기며, 종교활동을 하며, 학교에서 모여 가르치고 배우는 일 등 일상의 삶에 코로나19로 인해 제한적으로 가능하게 되었다. 그동안 당연하게 물리적인 장소에서 교수와 학생들이 만나서 진행하였던 대학 수업은 불가능하게 되었다. 동영상 강의를 시청하고, 온라인 상에서 토론을 하는 등 비동시적 온라인 수업이 실시되었다. 온라인 수업의 일방적인 강의 전달의 한계를 벗어나고자 다른 장소에 있지만 실시간으로 수업을 하는 줌수업도 시행해왔다. 줌을 통한 실시간 화상수업은 수업에 있어서 중요한 교수자와 학습자 간, 학습자와 학습자 간 관계 형성 및 상호작용과 사회적 실재감을 위해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이종연, 2003; 이영희, 2015; 박은혜·성지훈, 2020).

금방 끝날 것만 같았던 전염병은 약 3년간 지속되어 비대면으로 학교의 수업은 진행되다가 2022년 가을부터 대면 수업을 진행하기는 했지만 강의실에 칸막이를 하고 교수와 학습자 모두 마스크를 쓰고 수업을 진행하였다. 2023년 1학기 중반이 지나서야 실내에서 마스크가 해제되어 서로 얼굴을 보며 수업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오랜 기간 비대면으로 수업을 진행해왔던 학생들이 집에서 편한 복장과 자세로, 편한 시간에 수업을 받다가 강의 시간에 맞춰 통학하며 강의실에 앉아서 교수와 학우들과 상호작용하며 수업을 받는 상황에 적응하는 데에는 시간이 필요했다.

신승범(2022)은 코로나19 시기 게재 논문을 대상으로 기독교교육학 연구 동향을 분석하였다. 코로나19 기간에 기독교교육학 분야에서 교육의 효과성을 추구하는 교수-학습 방법, 예배, 설교의 방법 등 교육방법에 대한 연구는 기능별 특성에 해당하는 70편 중, 36편으로 가장 많았다. 그러나 대학의 수업을 사례로 한 연구에 대한 분석 결과는 없었다. 장별 분류에 따른 연구는 교회, 학교(공립학교, 종교계 사립학교, 대안학교), 가정, 사회, 미디어로 분류되었다. 대학과 대학의 수업에 관한 연구는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독교교육학을 가르치는 대학의 수업을 사례로 전공 수업의 개선을 돕고 전공 학생들을 기독교교육 교사로 훈련 및 양육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본 연구는 기독교교육학 전공의 “성서교수법” 수업 사례를 중심으로 한다. 본 연구는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로서 아는 것을 실천으로 옮기는 훈련을 하기 위해,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았던 학생들이 수업에 더 주도적이며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학습의 주체가 되도록 하여 학습의 효과를 높이게 하여 대면 수업에 적응하도록 돕고자 하였다. 기독교교육의 주요 내용

인 성경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가르치기 위한 교사로서의 역량을 키워주고자 하는 목적을 가진 수업이다. 다른 교과와 달리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에게 필요한 역량은 예수님의 본을 따라 아는 것, 가르친 것을 행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Zuck, 2014, 99-102). 예수님은 학습자들에게 정직하게 자기대면을 통한 자기성찰을 비판적으로 하도록 돕는 교육을 행하였다(백은미, 2016, 104). 성경을 잘 알고 가르치기 위해서는 교사 스스로 가르치는 내용대로 살아내려고 하는 실천과 자신의 삶을 정직하게 대면하는 성찰이 필요하다.

수업을 통해 학습한 내용을 의미있게 만들어야 아는 것을 실천으로 유도할 수 있다(송수지, 2012, 201). 매 수업 내용을 성찰하며 의미를 파악하여 자신의 삶에 적용할 내용을 찾아내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제한된 시간 내에 수업 시간의 강의와 활동만으로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부족하다. 이러한 성찰 과정은 이론과 실제의 통합을 일어나게 할 수 있다(Buckingham, 2003). 이를 위해 수업 내용과 자신과 학우들의 수업태도, 수업 활동에 대한 반성 및 성찰을 하기 위해 매주 수업 후 학습성찰일지를 작성하게 하였다.

본 연구는 학습성찰일지의 개념과 교육적 효과를 교육학적 측면과 기독교교육학적 측면에서 문헌 연구를 통해 이론적 배경을 살펴보고, 성서교수법 수업을 수강한 학생들의 학습성찰일지 경험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학습성찰일지의 효과를 파악하고 전공 수업을 통해 아는 것을 실천하는 기독교교육자로서 성장할 수 있는 훈련에 적용할 수 있는 효과적인 학습성찰일지 활동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목표를 위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 1) 학습성찰일지 작성과정(경험)은 어떠했나?
- 2) 학습성찰일지의 효과(결과)는 무엇이었는가?
- 3) 학습성찰일지의 개선사항은 무엇인가?

## II. 이론적 배경

### 1. 학습성찰일지의 개념

성찰의 개념은 John Dewey의 반성적 사고(Reflect Thinking)에서 나왔다고 볼 수 있다. 자신의 학습경험에 대해 생각하고 반성해보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자신이 경험에서 다양한 문제를 발견하고, 능동적으로 해결해나가고자 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학습에서 성찰은 자신의 학습 과정과 결과를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지적인 사고 과정을 의미하며, 이로 인해 학습경험에 대한 의미를 생성해내고 지식을 구성하는 활동이다(서정연·김영식, 2

016, 467). 성찰은 내용, 과정, 비판적 성찰의 세 가지 유형이 있다(Mezirow, 1990). 내용 성찰은 ‘무엇’(what)에 관련된 질문으로 문제를 인식하고 실행하는 과정에 대한 성찰이고, 과정 성찰은 ‘어떻게’(how)에 관련된 질문에 대한 성찰이고, 비판적 성찰은 ‘왜’(why)에 관련된 질문에 관한 성찰이다. 이러한 성찰 과정을 거치면서 자신의 학습경험을 의미있게 만들며 지식을 스스로 구성해보며, 다시 확장 시키게 된다(서정연·김영식, 2016, 468).

학습성찰일지란 학습 과정에 참여하여 경험한 내용을 기술하고, 스스로 분석 및 평가하기 위해 일지 형식으로 기술한 것을 말한다. 학습의 내용과 과정을 성찰하여 성찰적 사고를 촉진시키며 구체적인 실천을 촉진시키는 도구로 활용하기도 하고(Moon, 2006; 강인애·정은실, 2009; 김하영·김경은, 2013), 자기평가의 방법으로도 활용하고 있다(Moore & Hunter, 1993). 성찰일지는 구조화된 형식과 비구조화된 형식으로 구분되어 작성한다(Moon, 1990). 비구조화된 형식은 학습자가 자유롭게 자신의 경험을 표현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나 익숙하지 않은 학습자에게 부담이 될 수도 있다. 교육 내용과 과정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는 양식을 활용하는 것이 성찰일지의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이영민, 2006; Atkinson, Derry, Renkl, & Wortham, 2000).

## 2. 학습성찰일지의 교육적 효과

학습성찰일지의 교육적 효과는 첫째, 자아성찰 과정을 통해 자기를 돌아보고,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를 이해함으로써 바람직한 자아를 형성해 나가는 의미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Kurtines, 1989; 송인섭, 1998). 성찰 과정을 통해 자신이 누구인지 존재에 대한 물음을 하며 내면의 목소리를 듣게 되고, 성찰하며 변화하여 내적으로 성장하게 한다. 자신에 대한 이해는 타인과의 소통을 효율적으로 하게 되고, 사회적 자아로서의 역할을 인식하기 때문에 상호작용을 통한 효과적인 학습에 도움이 될 수 있다(최순화·김정옥, 2010). 학습자들이 인식한 학습성찰일지가 교육적 측면에서 반성적 사고를 촉진하고, 교육에 대한 자신만의 관점 형성, 교육 관련 이슈에 대한 관심 유발, 사회적 적응력 향상 등 다양한 유용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전주성, 2008). 정은주와 권효숙(2010)의 연구는 성찰체험에 관하여 심층 면담을 통해 얻은 의미로는 자신감과 긍정적 사고, 평화로운 마음, 인간관계의 새로운 시각, 행동적 실천이었다. 자신과 타인에 대한 이해의 확장으로 인해 인격이 성장해감으로 학습 과정에서 필요한 소통이 원활하게 되고, 갈등도 해결해 갈 수 있기에 교육적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성찰일지는 자기주도적 학습 태도에 영향을 주어 학업 성취도에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송수지, 2012; 김혜경·김차중, 2016; 이세희·이윤선, 2022). 흥미 수준에 대한

자기주도학습 능력의 영향은 문제해결력이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남선우, 2022). 이는 문제해결력이 주어지면 자기주도학습 능력이 향상되게 되고, 학습에 흥미를 가지게 되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동기가 부여된다는 것이다. 문제에 대한 이해, 비판적 성찰 과정을 통해 문제해결 능력이 향상되고, 이는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성찰은 학습 내용을 의미있게 지식을 구성하여 자신의 경험을 재검토하는 사고 과정이다. 자신의 학습 태도를 반성하고 성찰하는 과정을 통해 자기주도적으로 학습 태도를 개선해나가고자 실천하게 한다. 이러한 학습 태도의 개선은 학업 성취도에 영향을 자연적으로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이다. 김지선과 김영식(2015)의 연구는 성찰일지 작성이 성취도에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성찰일지 작성이 온라인 프로그래밍 학습에서 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작성 전후의 성취도 차이를 비교하여 효과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성찰일지는 성취도에 유의미한 학습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고, 내용 성찰, 과정 성찰, 비판적 성찰의 유형별 성취도와와의 관계에 있어서 과정 성찰이 성취도와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성취도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비판적 성찰 과정을 거쳐야 하는 학습성찰일지는 실천을 유도하는데 교육적 효과가 크다고 볼 수 있다. 비판적 성찰을 통해 실제 삶에서 무언가를 변화시킬 수 있는 행동으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일어난 일에 대해 반성적 탐구를 하고, 이에 대해 성찰하는 과정을 거쳐 실천적 지식을 얻게 되고, 그것을 실제에 다시 적용하는 방식이 진행되기 때문에 실천적 능력을 향상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김하연, 2016, 205).

### 3. 학습성찰일지의 기독교교육적 효과

기독교교육은 실천적 차원을 이끌기 위해 비판적 성찰이라는 접근이 필요하여 기독교교육학의 주요 연구 과제로 삼고 있다(강희천, 1994, 162). 사라 리틀(Sara Little, 1983, 160-164)은 기독교인에게 행동을 통해 신앙을 심화시키고 신념을 명확히 하도록 가르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신념을 검증하고 확인하고, 내재화하는 행동은 단지 교수를 위한 방법만이 아니라 교회의 전체적인 삶의 일부라고 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를 위해 행동-반성 모델을 제안하였다. 의식화(Awareness), 분석(Analysis), 행동(Action), 반성(Reflection)의 4단계 과정이다. 반성의 과정은 우리의 행동을 성경적인 관점에서 평가하고 개인적 및 공동체적 차원으로 재방향 설정을 가능하게 한다. 반성의 과정을 통해 기독교 신념을 행동화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리처드 오스머(Richard Osmer, 1995, 117-150)의 신앙의 네 가지 개념 중, 행위적 측면의 신앙인 헌신을 일으키기 위한 교수 방법으로 성찰과 관련이 있는 '삶의 이야기 재해

석'을 제안한다. 개인의 삶의 이야기를 재해석함으로써 자신의 정체성을 파악하여 자신을 새롭게 보게 되어 신앙공동체 안에서 행동으로 실천하는 헌신이 일어나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헌신 교육을 계획할 때, 첫 번째 단계는 학습자들의 관심사와 관련된 주제를 선택하고, 두 번째 단계는 기억하기, 성찰하기, 대면하기, 나누기, 결정하기의 다섯 가지 차원을 포함한 기본적인 양식을 결정하고, 세 번째 단계는 각 부분에서 필요한 학습 활동들을 정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성찰이 필요하고, 학습자를 헌신에 대한 새로운 방향을 결정하게 하는, 즉 삶의 변화를 위해 구체적인 실천 사항을 결단하게 한다. 성찰은 기독교 신앙의 내용을 삶으로 나타내기 위해 효과적인 교수 방법이 될 수 있다.

비판적 성찰은 토마스 그롬(Thomas Grome, 1997, 80-218)의 나눔의 프락시스(Shared Praxis) 모형에서 나타난다. 기독교적 종교교육의 목적을 하나님의 통치를 위한 교육, 인간의 온전한 자유를 위한 교육이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나눔의 프락시스를 제안한다. 프락시스는 학습자의 현재의 삶뿐만 아니라 과거와 미래까지도 참여하게 하는 행위적인 측면을 포함한다. 개인적 및 사회적 행위를 분석, 기억, 판단, 상상하는 일에 참여하는 반성적인 일이다. '삶을 표현하기', '현재 삶에 대한 비판적 성찰', '기독교 이야기와 비전에 접근하기', '기독교 이야기와 비전의 자기화', '실천적 신앙을 위한 결단 및 응답'의 다섯 단계의 자유로운 흐름(movement)을 거치면서 대화하며 나눔으로 기독교 신앙대로 실천적으로 살아가기 위해 구체적으로 결단하게 된다(박은혜, 2018).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이론적 앎과 실천적 앎이 통합되어진다고 보기에 성찰 과정은 기독교교육에 있어서 실천을 유도하는데 효과가 있다고 본다.

### III. 연구방법

#### 1. 연구참여자

본 연구는 경기도 소재 A 대학교 기독교교육상담학과 2022학년도 2학기에 2학년 교육과정으로 개설된 “성서교수법” 과목을 수강하는 22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들은 1학년 3명, 2학년 12명, 3학년 5명, 4학년 2명으로, 기독교교육상담학과 17명, 신학과 2명, 문화선교학과 1명, 사회복지학과 1명, 그리고 기독교교육을 복수전공하는 중어중문학과 1명이었다. 연구 대상자들은 이전에 학습성찰일지 작성 경험은 없었다. 종강 후, 면담 대상자는 성찰일지를 빠짐없이 성실하게 작성한 학생 중, 성적분포도 A, B, C 각 학점 대에서 2명씩을 선정하여 전화로 연구 목적과 면담에 대해 설명하고, 면담을 수락한 총 6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면담에 참여한 학생은 남학생 3명, 여학생 3명이었으며, 2학년 3명, 3학

년 2명, 4학년 1명이었다.

〈표 1〉 연구참여자 및 면담자 학년 및 성별

	연구 참여자					면담 참여자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소계	성적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소계
남	0	4	3	1	8	A	0	0	2	0	2
여	3	8	2	1	14	B	0	2	0	0	2
계	3	12	5	2	22	C	0	1	0	1	2

## 2. 연구 절차 및 도구

학습성찰일지 작성 경험을 연구하기 위한 연구 절차는 참여자들의 성찰일지 작성과 이에 대한 경험 분석의 두 단계로 나누어진다. 참여자들은 2주차부터 13주차까지 12번 교수자가 만든 교육 내용과 과정에 대한 성찰, 수업 내용을 자신의 삶에 적용할 점, 자신의 수업 집중도와 참여도, 그룹 활동에 대한 평가 등의 항목이 포함된 양식에 성찰일지를 작성하고, 매주 수업 다음 날 오전 8시까지 사이버캠퍼스 과제방에 제출하였다. 성찰일지 작성을 독려하기 위해 12회를 모두 제시간에 제출하면 5점을 부여하였고, 9번에서 12번을 제출하면 4점, 5번에서 9번을 제출하면 3점, 5번 이하는 0점을 부여하였다. 참여자 22명 중, 19명은 5점, 2명이 4점, 1명이 0점을 성찰일지 작성 점수로 부여받았다. 참여자의 86% 정도가 성찰일지를 대부분 작성하여 성찰일지 점수를 만점 부여받았다.

학기 중에 실시하는 중간 강의평가에서 수업에서 좋았거나 인상 깊었던 점과 아쉬웠거나 개선할 점을 서술식으로 기술하였고, 학기 말에 실시하는 기말 강의평가에서 주관식으로 기술하였다. 14주차에 교수자가 제공한 양식의 종강 설문지를 참여자 전체 학생이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종강 설문지에는 수업을 통해서 얻은 것, 수업의 장점과 단점, 후배에게 본 강좌 추천 의사와 그 이유, 효과적인 수업을 위한 개선방안, 성찰일지의 효과, 구체적인 방학 계획, 기도 제목, 교수에게 하고 싶은 말 등이 포함되었다.

종강 후, 성찰일지 작성 경험에 대해 심층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성적분포도에 따라 각 학점 대에서 2명씩 6명을 대상으로 줌으로 약 40분에서 60분 정도의 면담을 실시하였다.



〈표 2〉 연구 자료 목록

작성 시기	자료
2주차~13주차	성찰일지
7주차~8주차	중간 강의평가 서술식
14주차	기말 강의평가 주관식
15주차	종강 설문지
성적 확정 후	면담(Zoom)

### 3. 연구자료 수집 및 분석

연구참여자들이 작성한 중간 및 기말 강의평가의 서술식 평가 내용에서 성찰일지에 관한 내용을 수집하였고, 14주차에 제시한 교수가 만든 종강 설문지를 통해 학습성찰일지의 효과에 대한 결과를 수집하였다. 학습성찰일지 작성과정을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 2주차부터 13주차까지 매주 수업 후, 학습성찰일지를 12번 작성하게 하였다. 학생들이 경험한 것을 확인하기 위해 종강 후 성적이 확정된 이후에 6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줌(zoom)을 활용한 화상 면담을 실시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면담은 사전에 반구조적인 질문지를 제시하여 답변을 생각하게 하고, 면담 참여자들에게 동의를 구하여 Clova Note(AI 음성기록) 앱으로 휴대폰에 녹음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면담 자료는 녹음 파일을 텍스트 파일로 전환하였는데 분량은 A4 용지(글자크기 10) 약 180장 분량의 자료가 수집되었다.

수집한 자료의 분석 과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간 및 기말 강의평가의 서술식 및 주관식 평가 내용 중에서 성찰일지 관련 내용을 살펴보았다. 둘째, 종강 설문지에서 학습성찰일지의 효과에 대해 객관식으로 답한 내용을 문항별로 빈도수를 확인하였다. 셋째, 면담 녹음 파일을 텍스트로 변환한 자료를 여러 번 읽으면서 엑셀 파일로 질문별로 연구 문제에 따라 범주화하여 정리하였고, 범주에 따라 1차 코딩을 실시하였다. 면담 질문은 성찰일지 작성과정은 어떠했는지, 작성과정 동안 어떤 변화를 경험했는지, 성찰일지 작성의 효과는 무엇이었는지, 어려웠던 점은 무엇이었는지, 수업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성찰일지 작성의 개선방안은 무엇인지, 교수학습 과정에 성찰일지를 어떻게 활용하고자 하는지에 대한 것이었다. 반복적으로 언급되는 핵심 단어를 추출하였고, 연구문제와 관련된 문장을 선별하여 정리하였다. 넷째, 원자료를 다시 정독하면서 범주를 수정 및 보완하여 2차 코딩을 실시하였다.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패턴과 주제들과 예상외의 내용이 있는지 확인하면서 범주화하였다. 다섯째, 2차 코딩 자료를 정리하여 분석 결과에 반영하였다. 본연구의 연구 문제에 답할 수 있는 의미있는 정보를 확인하고, 질적 자료를 해석하여 결과에 반영하여 범주에 따라 기술하였다. 여섯째, 연구결과 및 해석을 검토하기 위해 면담 참여자 확인을 요청하였고 동료

검토 과정을 거쳤다.

## IV. 연구결과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연구문제 별로 연구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 성찰일지 작성과정 경험

면담을 통해 성찰일지 작성 시간, 소요 시간, 장소 및 방법, 작성하면서 어떤 느낌이었는데, 작성하는데 어려웠던 점, 작성하기 어려웠던 문항, 작성과정 중 어떤 변화를 경험했는지에 관한 세부 질문에 대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 1) 작성 방법

학습성찰일지는 주로 수업 후, 학교에서 작성하거나 귀가하여 작성하였다. 작성하는데 걸린 시간은 처음에는 최소 15분에서 1시간 가량이었으나 점점 적응되어 5분에서 20분 정도로 단축되었다. 아르바이트를 가야 하거나 노트북이 없는 경우에는 주로 집에 가서 작성하였다. 시간이 많이 걸린 경우는 복습에 시간을 많이 할애했기 때문이었다.

#### 2) 작성과정 중 느낌

12번의 성찰일지 작성과정 동안 어떤 느낌이 들었는지에 대한 의견은 초기, 중기, 후기에 따라 느낌이 변화되었다. 작성과정 초기에는 도움이 될지 의문이 들기도 하였고 낯설기도 하였고, 과제이기 때문에, 점수가 부여되니까 해야 한다는 의무감에 작성하였다. 다른 학생들이 하나까 해야만 할 거 같아서 그냥 했다. 중기로 접어들면서 자신의 수업에 대해 이렇게 성찰해볼 기회가 없었기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으로 작성하였고, 점점 수업 내용을 복습하고 반성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었다. 자신의 수업 태도에 대해 돌아보고 다음 수업에는 어떻게 임해야 할지 의식을 하게 되었다. 후기로 갈수록 성찰일지를 작성해야 하나까 수업에 집중해야겠다는 의식을 갖게 되었고, 수업 시간에 집중하게 되었다. 무엇을 배웠는지 정리하면서 복습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수업 참여도나 태도를 평가하면서 자신의 수업 참여도에 대해 반성하는 시간을 갖는 기회가 되어 기분 나쁘다고 느껴지지 않고 필수 과정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수업에 집중하고자 하는 동기가 잘 유지될 수 있었다.

### 3) 작성과정 중 어려웠던 점 및 문항

성찰일지 작성과정 중 어려웠던 점은 제출 마감 시간과 작성하기 어려운 문항에 관한 것이었다. 수업 다음 날 오전 8시까지 제출하도록 사이버캠퍼스 과제방에 마감 시간이 설정되었다. 다른 수업의 과제도 있고, 아르바이트나 동아리 활동 등으로 인해 늦게 귀가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다음날 오전 8시까지 마감 시간을 지키는 것이 어려웠다. 작성하기 어려웠던 문항은 그룹원의 활동을 평가하는 항목, 수업 내용의 사역 현장에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항목, 자신이 교사라면 어떤 방법을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항목 등이었다. 답해야 할 문항이 많았다는 의견도 있었다. 반면에 그룹원에 대해 평가하는 항목이 의미가 있었다는 의견도 있었다.

### 4) 작성과정 중 경험한 변화

작성과정 중 경험한 변화는 수업 내용을 복습하고 반성하는 시간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고, 자신의 수업 태도에 대해 반성하며 다음 수업 때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수업 태도 개선에 대한 동기가 강화되었다. 다른 그룹원들에 대한 평가를 하며 자극을 받기도 하여 그룹 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자 하였다. 성찰일지를 작성해야 하니 수업 시간에 집중력이 높아지게 되었다고 하였다.

〈표 4〉 성찰일지 작성과정 경험

		답변 예시
작성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업 끝나자마자 바로 제출하는 식으로 했거든요. 초반에는 15분에서 20분 정도 걸렸어요. (학생 1)</li> <li>수업 끝나고 저는 집이 멀다 보니까 학교에서 그냥 바로 끝나자마자 했어요. 수업을 정리하는 게 좀 있어서 내용을 받아적느라고 좀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그래도 한 30분에서 1시간 사이 걸렸어요. (학생 2)</li> <li>수업 끝나고 주로 하려고 했는데 그냥 제가 노트북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바로 썼을 텐데 없어서 집에 와서 하기도 했어요. 그냥 1시간 정도요. 복습 부분에 시간을 많이 할애해서 쓰니까요. (학생 6)</li> </ul>
작성 과정	복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처음에는 좀 과제라는 생각이 강했던 것 같아요. 작성하다 보니까 이날 배운 수업 내용이 앞으로 나한테 도움이 되는 내용인지 아니면은 어떨 때 이렇게 배운 내용을 사용할 수 있을지 같은 거를 점점 생각하게 됐던 것 같고 그게 약간 변화라면 변화였던 것 같고요. (학생 1)</li> </ul>
	수업 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장 큰 생각은 내가 수업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수업에 대한 너는 어떠한지 질문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하면서 수업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학생 3)</li> <li>저는 처음에는 사실 이제 점수 때문에 해야 하는 거니까 시작을 했는데 생각보다 효과를 좀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제 수업 태도 면에서 내가 오늘 참여도가 조</li> </ul>
느낌		

	반성	<p>금 저조했구나, 아니면 그 이유를 보면서 예를 들면 이 아프다 이러면 컨디션 관리를 좀 해야겠구나, 약간 이런 식으로 조금 그냥 학교생활을 하는 데에서도 도움이 됐던 것 같고... 그런데 어쨌든 그 수업에 잘 들게 된 게 집중을 계속한 게 이걸 자꾸 평가를 하니까 좀 더 집중하게 되었어요. (학생 4)</p>
작성과정	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출 시간은 타이트 하죠. 사실은 다른 이 수업만 있는 게 아니니까요. (학생 2)</li> <li>• 그걸 이제 좀 매주 하는 건데 그날 사실 다음 날 아침까지 제출이잖아요. 그날 학생 회의를 하고 이러다 보면 틈도 안 날 때가 많아서요. (학생 4)</li> </ul>
	부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매주 12번을 반복해서 해야 되니까... 다른 수업과 다른 수업의 과제와 겹치게 되고요. (학생 6)</li> </ul>
중 어려웠던 점 및 문항	문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역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할 건지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 어떤 때는 그날 이제 수업한 내용 중에 내 삶에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 딱히 없는 것 같다는 이런 느낌을 받은 날은 작성할 때 답을 좀 쥐어 짜내는 느낌이 들었던 것 같아요. (학생 1)</li> <li>• 일단은 팀원 평가가 좀 애매했던 것 같아요. 일단 한 명 한 명에 대한 평가가 아니어서 이걸 평 균을 내야 하는 건지 아니 너무 못 너무 안 한 애가 있는 반면에 너무 열심히 한 친구들이 있으면 이것을 점수를 어떻게 줘야 하지라는 좀 고민이 있었고... 그냥 나는 내가 점수를 줘서 내가 평가를 하면 되는데 팀원을 평가하는 게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학생 3)</li> <li>• 문항이 조금 많았던 거 말고는 사실 저는 크게 어려운 점이 없었어요. (학생 4)</li> <li>• 내가 교사라면 어떤 방법을 쓸 것인가 물론 성서 교수에 대한 내용은 아니지만 그런 걸 생각하라고 했는데 이게 어차피 뻔한 거가 나오고 그렇지 매주 그냥 뻔하게 그냥 쥐어짜게 하는 거니까 그런 점에서 별로 이거는 좀 어려웠고 고민했어요. (학생 5)</li> </ul>
	작성과정 중 경험한 변화	

## 2. 학습성찰일지 효과

중간 및 기말 강의평가의 서술식 평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성찰일지 작성과정 경험에 대한 기술은 거의 없었다. 평가내용의 대부분이 수업 방법, 내용, 교수자에 대한 응답이었다. 성찰일지 작성이 복습하는 데 좋았다는 한 명의 언급이 있었다.

학습성찰일지 효과에 대해 분석한 자료는 종강 설문지로 수강생 22명 중, 21명이 제출하였으나 한 명의 답변은 잘못 표기되어 결과에 포함할 수 없었으므로 20명의 결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종강 설문지 7번째 항목인 “매주 작성한 성찰일지의 효과를 아래의 예시를 참고하여 순위를 부여해주세요.”라는 문항의 빈도수를 측정한 결과 ‘복습’이 1위(10명)였고, ‘자신의 수업 참여 반성 및 평가’가 2위(5명), ‘수업 방법 평가 및 제안’과 ‘수업 내용의 적용’이 공동 3위(2명씩)였고, ‘그룹원들의 그룹 활동 평가로 인해 자극받음’이 4위(1명)였다. 2번째 순위로 성찰일지의 효과라고 표기한 순위는 ‘자신의 수업참여 반성 및 평가’가 8명, ‘복습’이 5명, ‘수업 내용의 적용’이 4명, ‘부족한 점 원인 파악 및 개선을 위한 동기부여’가 3명으로 나타났다.

〈표 5〉 학습성찰일지 효과(종강 설문지 결과)

문항	1위 답변 수	2위 답변 수
복습	10	5
수업 방법 평가 및 제안	2	0
수업 내용의 적용	2	4
자신의 수업 참여 반성 및 평가	5	8
부족한 점 원인 파악 및 개선을 위한 동기부여	0	3
그룹원들의 그 그룹 활동 평가로 인해 자극받음	1	0
기타	0	0
총답변 수	20	20

면담 결과 학습성찰일지 효과에 대한 의견은 종강 설문지 결과와 비슷하게 복습이 가장 큰 학습효과였고,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 수업 태도에 영향을 끼치게 된 효과가 있었다. 복습과 반성의 시간을 통해 수업 태도에 영향을 끼치게 되니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끼쳤다고 하였다. 수업에 참여한 전체 학생들의 의견인 종강 설문지와 6명을 대상으로 한 면담 결과, 학습성찰일지 가장 큰 효과는 복습과 자신의 수업 참여 반성 및 평가로 나타났다.

〈표 6〉 학습성찰일지 효과(면담 결과)

	답변 예시
복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아무래도 다른 수업 때는 이런 성찰일지 같은 게 없으니까 복습을 따로 제가 안 하었는데 이것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그날 수업했던 내용 같은 거를 다시 떠올릴 수 있는 계기가 되니까 복습을 한다는 느낌이 가장 컸던 거요. (학생 1)</li> <li>가장 큰 효과 본 게 복습은 맞아요. (학생 2)</li> <li>복습이 진짜 커요. 가장 저에게는 1번(복습)이 가장 강렬했다고 해야 하나 수업의 내용이 많고 어려운 부분들도 있다. 그날 정리하지 않으면 떠오르지 않는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학생 3)</li> <li>자기 수업 반성하고 평가한 거 자신의 수업 태도 반성하는 거에 대한 효과도 있지만 복습 그게 좀 저는 진짜 큰 것 같아요.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을 다시 정리하는 느낌이라서 오히려 공부하는 느낌으로 오늘 배운 거 잘 정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생각한 거 정리하다 보니 문가 머리에 남는 것이 훨씬 많았던 거 같아요. (학생 5)</li> <li>복습에 신경을 많이 썼고 실제로 그 복습한 것이 시험에 도움이 됐다. (학생 6)</li> </ul>
반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신을 뭔가 이렇게 돌아보는 그 시간이 주어진다는 게 가장 큰 메리트가 될 것 같아요. (학생 2)</li> <li>평가를 스스로 하는 거에서 제일 많은 효과를 봤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진짜 스스로 평가하면서 내 수업 태도가 어땠고 그 태도가 사실 수업에 어떤 영향을 미쳤고 내 공부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고 이런 걸 좀 생각을 하다 보니까... (학생 4)</li> </ul>
수업 태도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다음 수업 때는 어떻게 어떻게 참여를 해야겠다고 반영을 한 적도 있었던 거 같아요. (학생 1)</li> <li>성찰일지는 복습에 관한 것도 있고 내 수업 자체도 개선할 수 있는 게 더 많다 보니까 학기 중에 내 수업 태도를 조금 개선 시키고 내가 수업에 조금 더 참여하고 마음가짐을 바꾸고 이런 데는 효과를 봤어요. (학생 4)</li> </ul>
학업 성취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업에 열심히 참여해서 점수가 좋은 거구나를 이번 학기를 그냥 다 좀 느꼈던 것 같아요. 수업 때 듣는 게 생각보다 이제 성적에 많이 영향을 미치는구나를 깨달아서 내가 공부를 잘하기보다는 수업에 열심히 들었구나라고 생각했어요. (학생 4)</li> <li>학업성취도에도 영향을 받았던 것 같고요. (학생 3)</li> </ul>

### 3. 학습성찰일지 개선방안

학습효과를 높이기 위한 학습성찰일지의 개선방안은 문항, 제출 시간, 작성 간격, 복습과 성찰의 균형 등에 관한 의견이 있었다. 첫째, 문항에 관한 개선사항은 수업 내용의 적용에 관한 문항이 수업 내용에 따라 적용할 내용을 작성하기 곤란할 때가 있었으므로 수업 내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포괄적인 질문으로 찬성 또는 반대의 의견을 자유롭게 서술할 수 있도록 수정하였으면 하였다. 다른 의견으로는 수업 내용에 대한 복습 문항으로 무엇을 배웠는지 지, 정, 의 차원으로 나누어 작성하도록 하는 것도 제안하였다. 그룹원의 조별 활동에 대한 평가 항목 문항이 10개였는데 중복되는 것을 통합하거나 삭제하여 문항 수를 줄

였으면 하였다. 둘째, 제출 시간은 대체적으로 수업 다음 날 오전 8시가 적당하다고 하였으나 오전 10시나 정오까지로 하였으면 하는 의견도 있었다. 수업 후, 다른 일정이 있는 경우 밤에 작성하기 어렵기 때문에 수업 내용이 기억날 수 있는 시간까지 조금 연장했으면 하였다. 셋째, 작성 간격에 대한 개선사항은 복습과 성찰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매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지만 매주 작성하기에 부담이 되므로 2~3주에 한 번씩 작성하고, 그 결과를 학우들과 나누며 어떻게 활용하고 개선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넷째, 복습과 성찰의 비중에 대한 개선사항은 다양하게 제시되었다. 복습이 중요하기 때문에 복습을 강화하여 점수를 더 부여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다. 복습의 비중이 크다 보면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복습의 비중을 줄이고, 성찰의 비중을 늘리면 자신을 돌아보는데 효과적이 될 수 있다는 제안도 있었다. 수업 시간에 하나의 양식에 복습과 성찰을 함께 작성할 수 있도록 하되 부담이 될 정도의 항목은 줄일 것을 제안하였다.

〈표 7〉 학습성찰일지 개선사항

	답변 예시
문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만약 그날 수업이 막상 적용할 부분이 없으면 맞아 쓰기 곤란하고 애매할 것 같고 지워서 쓰는 학생도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질문보다는 오히려 학습 내용에 대해서 학생이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본인의 생각이나 의견을 조금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그런 질문이 조금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배운 내용 중에서 나는 이런 부분에 찬성을 하고 이런 부분에서는 좀 반대로 생각을 한다 이런 내용을 좀 자유롭게 써서 수업 내용을 좀 이해를 더 잘할 수 있고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데 좀 더 효과적일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학생 1)</li> <li>• 저를 평가하는 거는 괜찮은 것 같고 그룹 평가 질문을 조금 몇 개 줄여도 될 것 같아요. (학생 1)</li> <li>• 어떤 수업 방법을 사용했는가라는 이런 질문도 사실 수업에 저는 어느 정도 틀이 잡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적용은 이것도 좀 획일화된 대답이 좀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학생 3)</li> <li>• 지금은 그냥 무엇을 배웠습니까 자유롭게 기술하는 건데 그것을 오늘 배운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 다음에 어떤 느낌이었습니다, 그다음은 그래서 어떻게 적용하고 싶습니다까로 지정의로 나눠서 좀 세분화시키면 그냥 지식적인 내용 그다음에 내가 그래서 받은 느낌 어려웠다, 힘들었다, 황당하다 등 이런 느낌을 적게 하고, 그 다음에 행위 행위적인 측면 이렇게 좀 세분화하면 조금 복습을 체계화할 수 있게 활용할 수 있을 거 같아요. (학생 5)</li> </ul>
제출 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거 진짜 효과를 보려면 오히려 끝나고 쓰게 할 수밖에 없게 하든지 아니면 진짜 이렇게 오늘 밤까지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이거 다음 날 가면 생각도 안 나고 쓰기도 싫어요. (학생 3)</li> <li>• 차라리 아침까지가 나올 것 같아요. 왜냐면 또 그냥 빨리 이렇게 해버리고 그때 어차피 기억력이 그렇게 좋진 않잖아요. (학생 5)</li> <li>• 아침까지 사실 오전 8시면 그냥 자면 못 하고... 그 정도까지 하면 그래도 전날 수업까지는 이제 기억이 날 수 있으니까 딱 낮 12시 이 정도까지는 괜찮을 것 같아</li> </ul>

	<p>요. (학생 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0시 정도 그 정도까지만 올려줘도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밤에 알바를 하고 막 들어가서 밤에 오밤중에 하기 힘드니까 아침에 일어나서라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하면 좋겠다 이거죠. (학생 6)</li> </ul>
작성 간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매주는 아니더라도 한 2~3주에 한 번씩 지난주에 자기가 평가한 거에 대해서 나눠 보고 어떻게 계산했는지 그 정도는 한 번쯤 나눠보면 다른 애들은 어떻게 이걸 활용하고 개선하려고 하는지 이런 걸 들어보는 거는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요. (학생 2)</li> </ul>
복습과 성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찰일지 하면서 여기 복습 조금 넣고 하는 걸로 한다면 더 효과인 것 같아요. (학생 2)</li> <li>• 복습을 강화하고 이렇게 해서 그날 작성하게 하는 거요. 그렇게 하고 점수를 좀 더 주는 거죠. 성찰일지를 할 때보다는 조금 더 준다면 열심히 하는 애들은 많은 효과를 볼 것 같아요. (학생 3)</li> <li>• 복습 항목을 늘리면 애들이 조금 부담스러워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지금 내용도 지금 보면 엄청 많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이제 하면 더 많아지고 그래서 더 하기 싫어질 거 같아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한 파일에다 오늘 뭐 배웠는지와 성찰 이렇게 가면 좋은 거 같아요. (학생 5)</li> </ul>

#### 4. 학습성찰일지 활용방안

기독교교육 교사로 훈련받고 있는 학생들에게 학습성찰일지를 활용할 수 있는 사역 현장이나 교수학습 현장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의견에 대한 면담결과는 다음과 같다. 교회 교육 현장에서는 복습으로 하게 하면 부담을 가질 수 있으므로 수업 태도나 참여도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활용방안을 제시하였다. 성경공부나 예배에 참여한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문항들을 수정하여 무엇을 배웠는지, 어떤 느낌이었는지, 자신의 부족한 점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 작성하는 활용방안을 제안하였다. 교수학습 과정에 활용하는 방안으로 자신의 수업 태도와 참여도를 성찰하고 개선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제안하였다.

〈표 8〉 학습성찰일지 활용방안

	답변 예시
교회교육 현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만약에 이제 예배를 드린다는 경우에는 이 예배를 드리고 나서 오늘 예배에 대한 이 문항들을 바꿔서 오늘 예배는 무엇을 느꼈고 오케이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느낀 점이든 이렇게 부족한 점이 적었고 난 다음에 뭐가 이거 학습 성찰 일지를 사람들이랑 좀 나눴으면 좋겠다. (학생 2)</li> <li>• 어떠한 나의 자세와 태도를 알아가는 거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런 의미에서는 한 저도 한 다음에 뭐가 한 교육과정이나 있다 하시면은 처음. 중간 끝은 꼭 이런 걸 할 것 같아요. 중간 강의평가 느낌으로다가 한번 해보고 중간에 나의 모습은 좀 어</li> </ul>



	<p>면지 다시 점검해보고 끝날 때에는 좀 어떤 그런 부분이 개선이 됐는지 그렇게 하면 이게 예배든 뭐든 다 적용되는 거지만 내가 무엇을 배웠고 또 어떤 자세로 임하고 있는지는 예배에 있어서 되게 중요하잖아요. 어떤 자세나 예배를 향한 마음이나 그런 거를 점검한다는 의미에서는 저는 예배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학생 3)</p>
교수-학습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반성한다는 느낌으로 가볍게 오늘 어땠는지 수업 태도나 참여도가 어땠는지 생각하게 이렇게 넣어서 하면 덜 부담스럽고 도움이 학생한테 더 될 것 같아요. 반성하고 또 오늘 참여도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고 이런 걸 학생들이 많이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학생 1)</li> </ul>

## V. 나가는 말

본 연구는 아는 것을 실천하는 기독교교육자로서 성장하도록 돕기 위해 성서교수법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의 학습성찰일지 작성 경험과 효과를 분석하고, 학생들의 경험, 개선사항, 활용방안을 바탕으로 효과적인 학습성찰일지 활용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참여자들은 학습성찰일지를 작성하면서 학습에 도움이 되었다고 하였다. 작성 과정 중, 처음에는 과제이고 점수가 부여되니 의무감에 작성하여 부담이 되었지만 점점 복습과 반성하는 시간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고 수업 태도 개선에도 도움이 되었다고 하였다. 수업 방법, 그룹원들의 활동에 대한 평가, 수업 내용의 사역 현장에 적용할 점 등의 항목을 작성할 때, 제출 기간에 대한 압박감, 다른 수업의 과제와 겹칠 때 매주 작성해야 하는 부담이 되는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였다. 그러나 복습과 수업 태도에 대한 반성으로 인해 집중력도 좋아지고, 조별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는 변화를 경험하였다고 하였다.

참여자가 학습성찰일지를 작성하며 얻은 가장 큰 효과는 복습을 통한 학업성취였고, 그 다음이 자신의 수업 참여 반성 및 평가였다. 교수자가 학습성찰일지를 작성하게 한 의도는 매주 수업 내용을 복습하고 비판적 성찰을 통해 자신의 삶과 사역현장에 적용하여 구체적인 실천을 하도록 하기 위함이었고, 자신의 수업 참여에 대해 반성과 평가를 통해 수업 태도의 개선을 위한 동기부여에 효과적으로 사용되는 것이었다. 복습함으로 수업 내용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아 성찰의 교육적 효과로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 연구의 결과와 연관성이 있음을 보여준다(김지선·김영식, 2015; 송수지, 2012; 김혜경·김차중, 2016; 이세희·이운선, 2022).

효과적인 학습을 위한 학습성찰일지 개선사항은 답하기 어려운 문항의 수정, 중복되는 문항의 통합 또는 삭제, 제출 기간 연장과 작성 간격, 복습과 성찰의 비중 등이 있었다. 참여자들은 학습성찰일지는 학습에 효과가 있지만 부담이 되지 않는 정도의 문항과 작성 횟수를 제안하였다. 복습과 성찰이 포함되지만 복습의 비중은 조금 줄이고, 성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 학습성찰일지는 복습을 통한 학업성취도와 자신의 수업에 대한 반성을 통해 수업 태도 개선에 있어서 실천적인 측면에 효과가 나타난 연구 결과에 대해 논의와 효과적인 학습성찰일지 활동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습성찰일지는 학습자들에게 번거롭고 부담이 되는 활동이지만 수업 내용을 복습하며 핵심 내용을 정리하며 이해한 것과 이해하지 못한 부분을 확인함으로써 학업성취도에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업 후, 학습자 스스로 복습의 시간을 갖는 것은 수업 내용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데 필요한 과정이다. 스스로 복습하지 않는 학습자들에게 학습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학습성찰일지 작성 활동을 교수학습 과정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본 수업에서는 복습을 위한 질문은 ‘오늘 수업에서 무엇을 배웠습니까?’, ‘어떤 과정(활동, 방법, 예습, 교재 등)을 통해 배웠습니까?’, ‘오늘 학습에서 잘된 점은 무엇입니까?’, ‘오늘 학습에서 부족한 점은 무엇입니까?’, ‘오늘 수업 통해 학습한 것을 개인의 삶의 변화와 사역 현장에 어떻게 적용할 것입니까?’ 등 다섯 문항이었다. 복습 부분 작성하는데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복습을 위한 문항을 줄일 것을 제안한다. 본 연구참여자가 제안하였던 것처럼 지, 정, 의 측면에서 무엇을 배웠는지 질문하는 것도 간단하면서 전인적인 앎을 확인하는데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둘째, 수업 내용과 더불어 수업 과정에 대한 성찰을 거치면서 자신에 대한 성찰을 함으로써 내적으로 성장하는데 도움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의 학습자로서 태도는 어떠했고, 수업 활동에 참여하고 집중한 정도는 어떠했는지 성찰하며 평가하는 과정을 통해 부족한 점과 개선해야 할 점 등 자신에 대한 이해가 확장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수업의 효과를 일으키는 요인을 외적인 통제에 두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내적 통제에 두어 스스로 수업 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동기를 갖게 한다. 본 연구에 사용된 학습성찰일지에서 자신의 수업 과정에 대한 성찰 질문으로는 ‘오늘 수업에서 자신의 수업 집중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그렇게 답한 이유는 무엇입니까?’(집중하게 된 이유, 집중하지 못한 이유, 방해요인, 집중에 도움이 된 요인 등), ‘오늘 수업에서 자신의 참여도(교수자의 질문에 답변, 그룹 활동, 과제 작성 등)는 어느 정도입니까? 그렇게 답한 이유는 무엇입니까?’(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된 이유, 참여하지 못한 이유, 참여 방해요인, 참여 촉진 요인 등)이었다. 또한 자신과 그룹원들의 활동을 10가지 항목으로 평가하는 항목도 수업 과정에 대한 평가 항목에 포함되었다. 성찰 과정을 통해 자신을 이해하고,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학습성찰일지를 작성하고자 하였고, 다음 수업 때 반영하기도 하였다고 하였다. 그러나 그룹원에 대한 평가를 하는데 있어서 그룹원이 여러 명이기 때문에 항목별로 평가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제안을 반영하여 그룹원들의 활동을 평가하기보다는 반성적으로 성찰하며 자신에게 반영해보는 문항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한다. 예를 들어, 다른 그룹원의 활동을 통해 자신에게 적용하고 싶은 것은 무엇

인지, 도전과 자극이 되는 것은 무엇인지 등에 대한 질문이다. 학습 과정을 성찰하며 자신에 대한 이해의 확장과 수업 태도 개선에 동기를 주기 위한 전략으로 학습성찰일지에 수업 과정에 대해 반성적 성찰을 위한 평가 항목을 포함할 것을 제안한다.

셋째, 본 연구 결과, 학습성찰일지 작성을 통해 구체적으로 수업을 개선하고자 하는 실천적 지식을 얻게 되고 자신의 학습 활동에 적용한 효과가 있었다. 기독교교육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에게 학습한 내용이 삶으로 이어지게 하여 삶과 삶의 분리가 아닌 일치가 일어나도록 전공 수업에서 훈련할 필요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학습성찰일지는 반성과 성찰 과정을 통해 자기주도적으로 삶의 변화를 결단하게 하고, 실천하게 하는데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개인적 및 관계적인 차원에서 자신의 행위를 분석하고, 비판적으로 성찰하여 내용을 삶으로 연결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효과를 얻기 위해 학습성찰일지에 수업 내용과 과정에 대한 성찰 문항과 자신의 행위와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을 평가하고 성찰하는 문항을 포함할 것을 제안한다.

넷째, 본 연구 결과에서 참여자들이 작성하기 어려워했던 문항 중 하나는 ‘자신이 교수라면 학습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였다. 성서교수법 수업이라 교수자 입장이 되어 효과적인 교수법에 대해 생각해보도록 하기 위해 본 문항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교수에 의해 수업방식이 정해진 대로 매주 수업이 진행되기에 학습자들은 매주 다른 수업 내용에 따라 교사라면 어떤 방법을 쓸 것인가에 대해 억지로 끄집어내어 작성하기 어려웠다고 하였다. 학습성찰일지는 학습자 측면에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문항을 설정할 것을 제안한다. 효과적인 교수방법에 관한 질문은 학습성찰일지의 목적과 의도에 적절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수업 내용의 복습과 수업 과정에서 자신과 타인의 행동을 성찰하고 개선해 나가는데 도움이 되는 문항을 포함하는 것이 효과적인 전략이 될 수 있다.

다섯째, 학습성찰일지 작성 횟수와 제출 기간에 대한 의견은 교수자가 제시한 대로 매주 수업 후, 다음 날 오전 8시까지가 적당하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 복습과 성찰을 위해 작성하기 때문에 매주 작성할 필요가 있다. 문항 수를 조정하고 복습과 성찰을 위한 필수적인 질문을 제시하여 부담감을 줄이면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본다. 제출 기간은 학기 초에 학생들에게 의견을 듣고 조정하여 수업 후 일정이 있는 학생들을 배려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2022년 2학기 성서교수법 수업 사례를 중심으로 실시되었기 때문에 단일 수업의 사례만 다룬 한계를 가지고 있기에 향후 다양한 수업을 대상으로 연구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 자료 수집에 있어서도 모집단 22명 중 6명을 대상으로 면담하여 결과를 도출했기 때문에 작성된 내용이 부족할 수 있다. 이러한 제한점들을 고려하여 후속 연구를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결과에서 제시한 내용을 바탕으로 수정하여 구조화된 학습성찰일지 양식을 제공하여 경험을 분석하고 효과를 탐색해볼 것을 제안한다. 둘째, 한 수업만을

사례로 하지 말고 다양한 전공 수업에 확대하여 진행하여 기독교교육 전공 수업에 적절한 학습성찰일지 활동 전략을 수립할 것을 제안한다. 셋째, 구조화된 양식과 비구조화된 양식을 혼합하여 작성하게 하거나 수업 별로 양식을 다르게 하여 비교하는 연구를 통해 작성 경험을 분석하고 효과성을 탐색할 것을 제안한다.

## 참 고 문 헌

- 강희천 (1994). 기독교교육학에서의 비판적 성찰. **신학논단**, **22**, 161-185.
- [Kang, H. C. (1994). Critical reflection in Christian education. *Theological Forum*, *22*, 161-185.]
- 강인애, 정은실 (2009). 성찰저널이 지닌 교육적 의미에 대한 탐구: 대학에서의 수업사례. **교육방법연구**, **21(2)**, 93-117.
- [Kang, I. A. & Jeong, E. S. (2009). Then reexamination of educational implications of reflective journal: A university class case. *The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Methodology Studies*, *21(2)*, 93-117.]
- 김지선, 김영식 (2015). 성찰일지를 적용한 온라인 프로그래밍 학습에서 성찰일지 작성이 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분석. **교육연구**, **31**, 115-132.
- [Kim, J. S. & Kim, Y. S. (2015). Effect of reflective journal writing on the achievement in online programming learning. *Korean Journal of Teacher Education*, *31*, 115-132.]
- 김하연 (2016). 대안적 교사교육 접근으로서 반성적 실천주의가 갖는 함의 탐색. **교육연구**, **65**, 197-225.
- [Kim, H. Y. (2016). A study on the implication of reflection-in-action as an alternative approach of teacher education. *Educational Research*, *65*, 197-225.]
- 김하영, 김경은 (2013). 사회과 인권수업에서의 성찰일지쓰기의 효과분석: 학업성취도와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중심으로. **시민교육연구**, **45(3)**, 81-102.
- [Kim, H. Y. & Kim, K. E. (2013). The effect of reflective journal writing in social studies instruction: Focused on learning achievement and academic self-efficacy. *Theory and Research in Citizenship Education*, *45(3)*, 81-102.]
- 김혜경, 김차중 (2016). 성찰일지 적용이 이공계 자기주도학습 학생의 학업에 미치는 영향. **공학교육연구**, **19(5)**, 65-71.
- [Kim, H. K. & Kim, C. J. (2016). A study on the influence of a reflection journal upon self motivated-learners' study. *Journal of Engineering Education Research*, *19(5)*, 65-71.]
- 남선우 (2022). 원격 수업 환경에서 자기도학습능력이 문제해결력을 매개로 흥미수준에 미치는 영향. **기독교교육논총**, **72**, 205-223.
- [Nam, S. W. (2022). A study on the mediating effect of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on interest level through problem-solving ability in distance learning environment. *Journal of Christian Education in Korea*, *72*, 205-223.]
- 박은혜 (2018). 자기성찰 일지의 교회학교 교사교육 방안 연구. **기독교교육정보**, **57**, 33-61.
- [Park, E. H. (2018). A study of church school teacher education through self-reflective journal. *Korea society for Christian Education & Information Technology*, *57*, 33-61.]
- 박은혜, 성지훈 (2020). 실시간 화상 수업에서의 사회적 실재감 탐색: 기독교교육 수업 사례를 중심으로. **기독교교육논총**, **64**, 203-235.
- [Park, E. H. & Sung, J. H. (2020). An exploratory study on social presence in synchronous distance course: Focused on the cases of Christian education classes. *Journal of Christian Education in Korea*, *64*, 203-235.]
- 백은미 (2016). 예수의 비유를 통해 본 비판적 성인학습의 과제. **기독교교육논총**, **47**, 95-126.
- [Paik E. M. (2016). Jesus' teaching method by using parables and the tasks of critical adult learning. *Journal of Christian Education in Korea*, *47*, 95-126]
- 서정현, 김영식 (2016). 성찰일지를 활용한 PBL 기반 초등학교 프로그래밍 교육 교수-학습 전략 개발 및 적용. **정보교육학피논문지**, **20(5)**, 465-474.
- [Seo, J. H. & Kim Y. S. (2016).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teaching-learning strategy for PBL-based programming education using reflection journal in elementary school.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Information Education*. 20(5), 465-474.]

- 송수지 (2012). 성찰일지 적용 학습이 예비교사의 자기주도적 학습태도 및 학업성취에 미치는 효과. **기독교교육정보**, 35, 199-227.
- [Song, S. J. (2012). The effect of reflective activity on learning attitude and academic achievement for religious prospective teachers. *Korea society for Christian Education & Information Technology*, 35, 199-227.]
- 송인섭 (1998). **인간의 자아개념 탐구**. 서울: 학지사.
- [Song, I. S. (1998). *The exploration of human self-concept*. Seoul: Hakjisa.]
- 신승범 (2022). 기독교교육학 연구 동향 분석: 코로나19 시기 게재 논문(2020.3~2022.6)을 중심으로. **기독교교육논총**, 72, 97-115.
- [Shin, S. B. (2022). Analysis of research trends in Christian education: Papers published during Covid-19 (2020.3~2022.6). *Journal of Christian Education in Korea*, 72, 97-115]
- 이세희, 이윤선 (2022). 성찰일지가 학업성취도와 학습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메타분석. **교육방법연구**, 34(4), 873-900.
- [Lee, S. H. & Lee, Y. S. (2022). A meta-analysis of effects of writing reflective journals on academic achievement and learning attitude. *The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Methodology Studies*, 34(4), 873-900.]
- 이영민 (2006). 블러그 학습환경에서 질문제시전략이 학습자의 성찰적 사고와 동기에 미치는 영향. **교육공학연구**, 22(2), 69-85.
- [Lee, Y. M. (2006). Effects of questioning strategy on learners' reflective thinking and motivation in web-log learning environment. *Journal of Educational Technology*, 22(2), 69-85.]
- 이영희 (2015). 실시간 원격 화상 한국어 교육에 대한 사례 연구: KF Global E-school 숙명여대-쿠웨이트대 한국어 교육을 중심으로. **돈암어문학회**, 28, 413-437.
- [Lee, Y. H. (2015). Distance video Korean education-based on the KF global E-school: Sookmyun womens' Univ.-Kuwait Univ. Korean language program-. *Donam Ohmunhak*, 28, 413-437.]
- 이종연 (2015). 실시간 웹 기반 교육 운영 사례 연구: K 대학교 실시간 웹 강좌 운영을 중심으로. **교육정보방송연구**, 9(2), 5-37.
- [Lee, J. Y. (2015). Focus on the case of a university in Korea=Case study on the implementation of realtime web-based instruction. *Journal of Korean Association for Educational Information and Media*, 9(2), 5-37.]
- 전주성 (2008). 학습일기쓰기의 유용성 및 만족에 관한 연구: 고등교육 영역의 학습자를 중심으로. **Andragogy Today: Interdisciplinary Journal of Adult and Continuing Education**, 11(4), 1-22.
- [Jun, J. S. (2008). A study on the usefulness and the satisfaction of learning journal writing. *Andragogy Today: Interdisciplinary Journal of Adult and Continuing Education*, 11(4), 1-22.]
- 정은주, 권효숙 (2010). 'HSP자아발견 프로그램'을 통한 성찰체험에 관한 연구. **뇌교육연구**, 3(5), 77-105.
- [Jeong, E. J. & Kwon, H. S. (2010). A study on the reflection experience of 'HSP self-discovery program'. *Journal of Brain Education*. 3(5), 77-105.]
- 최순화, 김정옥 (2010). 중학생들의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 향상을 위한 현실치료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효과. **한국가족관계학 회지**, 14(4), 303-305.
- [Choi, S. H. & Kim, J. O. (2010). Research on educational methods of self-reflection poetry. *The Journal of Yeolin Education*. 19(4), 27-51.]
- Atkinson, R. K., Derry, S. J., Renkl, A. & Wortham, D. (2000). Learning from example: instructional principle from the worked examples research. *Review of Educational Research*, 70(2), 181-214.
- Buckingham, D. (2003). **미디어교육: 학습, 리터러시, 그리고 현대문화**. 기선정, 김아미 역. (2004). 서울: JNBook.
- [Buckingham, D. (2004). *Media Education: Literacy, Learning, and Contemporary Culture*. Translated by Ki, S. J.,

- Kim, A. M. Seoul: JNBook.]
- Kurtines, C. (1989). *Developing self-esteem and creativity in the preschool*. NY: Miami University Press.
- Little, S. (1983). **기독교교육 교수방법론**. 사미자 역.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원전 1983 출판)
- [Little, S. (1983). *To set one's heart: Belief and teaching in the church*. Translated by Sa, M. J. Atlanta: John Knox Press. (original work published 1983).]
- Merizow, J. (1990). *Fostering critical reflection on adulthood: A guide to transformative and emancipatory learning*. San Francisco: Jossey-Bass.
- Moon, J. A. (2006). *Learning Journals*. London: Routledge.
- Moore, W. S. & Hunter, S. (1993). Beyond mildly interesting facts: Student self-evaluation and outcomes assessment. In J. MacGregor(Ed.). *Student self-evaluation: Fostering reflective learning. New Directions for Teaching and Learning*, 56, SF: Jossey-Bass.
- Groome, T. (1997). **나눔의 교육과 목회**. (한미라 역). 서울: 기독교대한감리회홍보출판국. (원전은 1991에 출판).
- [Groome, T. (1997). *Shared Praxis*. Translated by Han, M. R. Seoul: Publication Bureau of the Korean Methodist Church. (original work published 1991).]
- Osmer, R. R. (1995). **신앙교육을 위한 교수방법**. (사미자 역).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원전은 1992에 출판).
- [Osmer, R. R. (1995). *Teaching for faith: A guide for teachers of adult classes*. Translated by Sa, M. J. Seoul: Korea Presbyterian Church Publishing Department. (original work published 1989).]
- Zuck, R. (2014). **예수님의 티칭 스타일**. 송원준 역. 서울: 도서출판 디모데.
- [Zuck, R. (2014). *Teaching as Jesus Taught*. Translated by Song, W. J. Seoul: Timothy. (original work published 1995).]